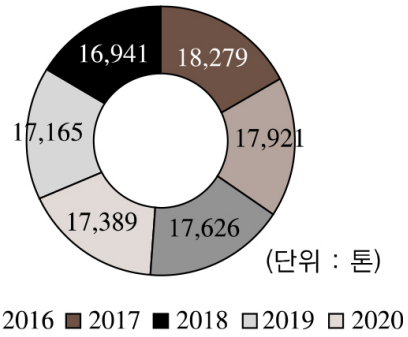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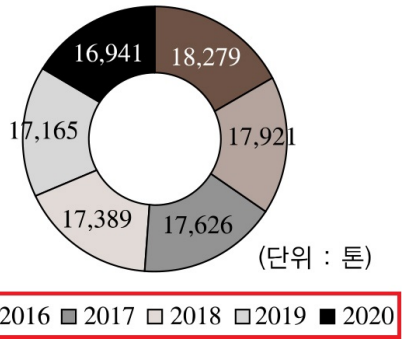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|---|---|---|
| 본권<br>64p<br>번호 : 11 | 문제-보기(지문) | ㄴ. 2015 ~ 2020년 감귤 생산량<br>  <br> | ㄴ. 2015 ~ 2020년 감귤 생산량<br>  <br> |
| | | 수정 사유 | 범례 색상 오류 |
| 정답 및 해설<br>74~74p<br>번호 : 10 | 해설 | 10 정답 ②<br>중국의 의료 빅데이터 예상 시장 규모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.<br>구분 \| 2015년 \| 2016년 \| 2017년 \| 2018년 \| 2019년 \| 2020년 \| 2021년 \| 2022년 \| 2023년 \| 2024년<br>성장률(%) \| – \| 56.3 \| 90.0 \| 60.7 \| 93.2 \| 64.9 \| 45.0 \| 35.0 \| 30.0 \| 30.0<br>2021년과 2022년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비슷한 감소폭을 보이는 것에 비해 ②의 그래프는 증감률이 크게 차이를 보이므로 ②의 그래프가 적절하다. | 10 정답 ②<br>사망원인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'암, 심장질환, 뇌질환, 자살, 당뇨, 치매, 고혈압'이며, 암은 10만 명당 185명이고,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각각 앞으로 인한 사망자와 20명 미만의 차이이다. 또한 자살은 10만 명당 50명이다.<br>오답분석<br>① 사망원인 중 암인 사람은 185명이다.<br>③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50명이다.<br>④ · ⑤ 뇌질환 사망자가 암 사망자와 20명 이상 차이난다. |

| 위치 | 오류유형 |
| --- | --- |
| 본권 260~261p 번호 : 10 | 문제-본문 |

## 수정 전

**10** 다음은 중국의 의료 빅데이터 시장 예상 규모에 관한 자료이다. 이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구했을 때 그래프로 올바르게 변환한 것은?

〈2015 ~ 2024년 중국 의료 빅데이터 시장 예상 규모〉

(단위 : 억 위안)

| 구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규모 | 9.6 | 15.0 | 28.5 | 45.8 | 88.5 | 145.9 | 211.6 | 285.6 | 371.4 | 482.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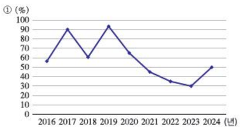
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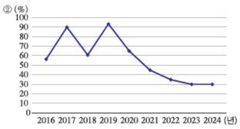
ㄱ. 2018 ~ 2019년까지 전년 대비 매년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하락한 국가의 2017 ~ 2019년 동안 인간개발지수는 항상 0.920 이상이다.

ㄴ. 평균교육기간이 2017 ~ 2019년 동안 동일한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가 2018 ~ 2019년 동안 매년 증가한 국가는 80% 미만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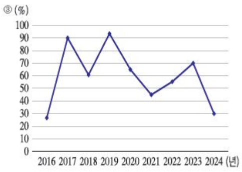
ㄷ. 2018년 인간개발지수가 최상위국인 국가의 2019년 평균교육기간이 13년 미만인 국가는 7개 국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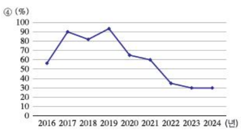
ㄹ. 2019년 HDI 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의 2017년 평균교육기간 평균은 12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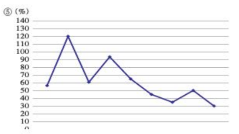
①


②




③


④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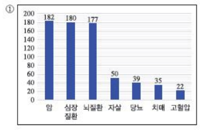
⑤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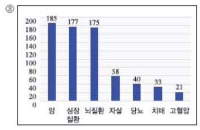
## 수정 후

**10** 다음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 관한 자료이다. 자료를 참고하여 인구 10만 명 중 사망원인에 따른 인원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?(단, 모든 그래프의 단위는 '명'이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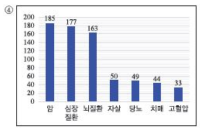
한국인 10만 명 중 무려 185명이나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암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알려진 가운데, 그 밖의 순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. 2위와 3위는 각각 심장과 뇌관련 질환으로 알려졌고, 또한 1위와의 차이는 20명 미만일 정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한국인 주요 3대 사망원인으로 손꼽아진다. 특히 4위는 자살로 알려져 큰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·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, 인구 10만 명 당 50명이나 이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. 그 다음으로는 당뇨, 치매, 고혈압의 순서이다.

①



②

③





④



⑤

**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**
**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**